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과 장 박시영 사무관 신정옥	042-481-8197 042-481-506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12월 4일(화)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특허청-도미니카공화국 적정기술 경진대회 개최

- 12월 4일, 산토도밍고에서 시상식 열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현지 시간 12월 4일(화), 김병연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루스 록워드(Ruth A. Lockward)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상하원 고위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적정기술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적정기술’이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기술로 첨단 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개도국에 적합한 기술을 의미한다. ‘적정기술 경진대회’는 실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로 해결 방법을 찾는 대회이다.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일상생활을 위한 혁신적 발명(Innovative Solutions for Everyday life)’을 슬로건으로 ‘농업분야 적정기술’을 주제로 공모하여 올해 총 63건이 출품됐다.

특허청은 2011년부터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베트남, 몽골, 태국 등 지금까지 12개국에서 총 16회의 적정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2016년 중남미 지역 최초로 경진대회를 개최한 이래, 현지 문제해결에 적합한 '특허정보를 이용한 적정기술'의 효과성을 인식하여 올해까지 3회 연속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적정기술 경진대회를 통해 개도국 현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특허청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지식재산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붙임 : 1. 특허청-WIPO 공동 적정기술 경진대회
2.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 적정기술 경진대회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신정옥 사무관(☎ 042-481-50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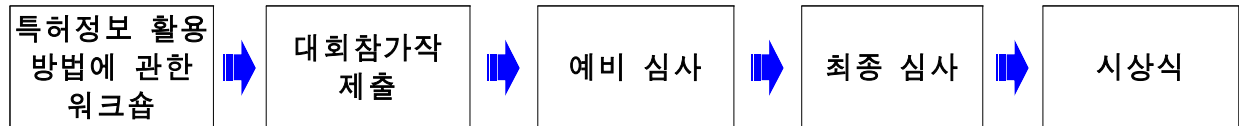
붙임 1

특허청-WIPO 공동 적정기술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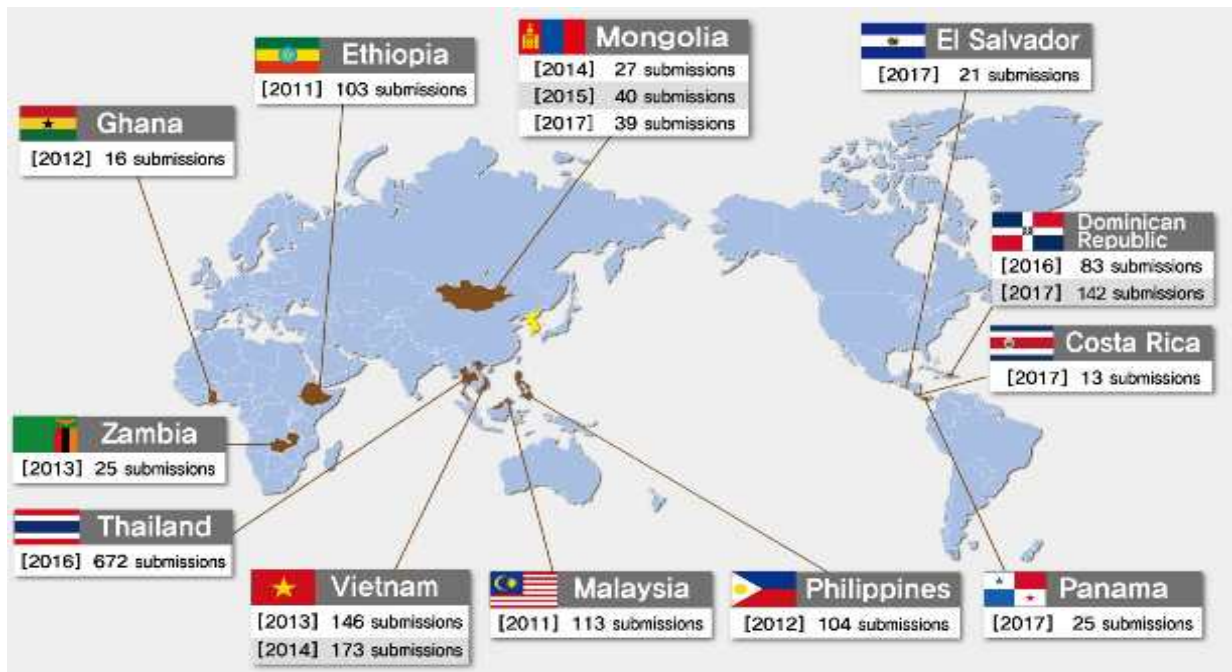
□ 적정기술 경진대회 개요

- (목적) WIPO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특허정보 활용 능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확산하여 개도국의 지재권 인식 제고
- (대회 내용) 개도국의 학생, 발명가들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현지 생활 문제 해결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제안

< 특허청-WIPO 공동 적정기술 경진대회 절차 >



- '11~'17년 12개국에서 16회의 적정기술 경진대회 개최



- 적정기술 경진대회 수상작은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과 연계하여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정책 모델 확산

□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 적정기술 경진대회

- (일시/장소) '18. 3.~11. /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 (대상) 학생, 연구원, 발명가 등
- (주최/주관) 특허청, WIPO / 도미니카공화국 특허청(ONAPI)
- (주요 분야) 농업분야 적정기술

< 도미니카공화국 적정기술경진대회 포스터 >

